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라”

서울 선교부장
하 근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지나간 수년 동안 교회가 이룩한 무한한 발전을 돌이켜 볼 때 참으로 기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 땅에서 교회를 시작했을 때와 지금의 발전상을 비교하면서 나는 이처럼 큰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교리와 성약 4편에 보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자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신앙, 희망, 자비, 사랑의 덕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자는 그 일을 수행할 자격이 있나니.”(5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전념하여 구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집중한다는 것은 그 일을 성공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며 특히 주님의 사업을 행함에 절대로 필요한 일입니다. 교리와 성약 4편에서는 주님의 일을 수행할 자격의 하나로 이 집중력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중하지 않으면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88편은 우리가 주님의 사업을 위해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뜻을 집중할 때 오는 축복에 관해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 너의 온 몸은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러므로 너희는 성결케 되어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날이 이르리니”

(67, 68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주님의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언젠가는 그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기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주 성찬을 들면서 “항상 그를 생각하며,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맡고 있는 교회의 책임에 마음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내가 맡은 책임은 반원을 가르치고 개심시키는 일입니까? 가정 복음 교육과 우정 증진을 통해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까?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이들을 해의 왕국으로 인도하는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성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과연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일단 주님의 일에 참여했다면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는 자이며 그런 자는 왕국에 합당치 못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행복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말 씀드립니다. 아멘 *



포엘맨 장로 부처



커드버트 장로 부처

신임 총관리 역원 소개

대관장단은 칠십인 제일 정년회에서 봉사할 총관리 역원 4명을 새로 불렀다.

지난 4월 1일에 거행된 148차 연차 대회에서 부름받은 총관리 역원은 전 팔로 알트스테인 부장단 보좌였던 로날드 이 포엘맨(49),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선교부장인 데렉 에이 커드버트(51), 현지역 대표이며 청남상향회 본부 회장을 역임한 로버트 엘 백맨(56), 캘리포니아 아나하임 선교부장인 렉스 시 리브(63) 장로이다.

이들이 새롭게 부름을 받음으로써 총관리 역원은 66명으로 늘었으며, 칠십인 제일 정년회 회원수가 44명이 되었다.

포엘맨 장로는 1953년에 유타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였으며, 1955년에는 유타 대학 법과를 졸업하였다. 1965년에는 하바드 경영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부름을 받을

때까지 운수회사 부사장으로 있었다. 솔트레이크시티 출신인 그는 1950년 3월 클레어 호우웰 스토타드 자매와 결혼하여 슬하에 네 자녀를 두고 있다.

커드버트 장로는 1951년 1월 27일 영국 노팅햄에서 개종하였다. 그는 1953년부터 1956년까지 노팅햄 지부장을 역임하였고 1969년에는 버밍엄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름받았다. 그는 선교부 상향회 회장, 지방부장, 스테이크 고등평의원 등도 역임하였다.

1950년 노팅햄 대학을 졸업한 그는 영국 셀라니스 케미칼 프라스틱 그룹에서 매니저로 일했다. 그는 1926년 10월 영국 노팅햄에서 태어났으며 무리엘 올리브 메이슨 자매와 1945년 5월에 결혼하여 슬하에 10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백맨 장로는 1970년 4월에 지역대표로 부



백엔 장로 부처



리브 장로 부처

름받았다. 그는 선교부장, 상향회 본부인원, 청남상향회 본부 회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1922년 3월 22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태어났으며, 1941년 7월 5일에 버지니아 피켓 자매와 결혼하여 슬하에 5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그는 1949년에 유타 대학 법과를 졸업하였고 변호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리브 장로는 1914년 11월 23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태어났으며 1957년 2월에 필리스 매 닐슨 자매와 결혼하여 슬하에 7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그는 선교부장, 감독, 스테이크 부장단 보좌를 역임하였다.

그는 1934년에 스노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1975년에 선교부장으로 부름을 받을 때까지 매도골드 우유 회사의 중역으로 일했다.

예언자 기념 식수

지난 5월 24일 예루살렘 근교인 키드론 골짜기에 있는 올슨 하이드 기념 동산에서는 13개의 감람나무 기념 식수식이 거행되었다. 흠어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집합할 땅으로 팔레스타인 땅을 하나님께 헌납한 올슨 하이드 장로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지는 이 동산에 이 경륜의 시대를 인도한 요셉 스미스에서 킴블 대관장에 이르는 12명의 예언자를 상징하는 12그루의 나무가 심어졌다.

또한 심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며 올슨 기념 재단 이사장인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를 위해서 13번째 나무가 심어졌다. 이 나무는 이스라엘의 집합을 위해 1841년 10월 24일 올슨 하이드 장로가 역사적인 기도를 드린 지점에 심어졌다.



노변의 모임에 참석한 한 선교부장과 서 스테이크 부장단



부산 선교부에서 삼년의 임기를 마치고 귀환한 한 선교부장 부처

한 인상 전 부산 선교부장 귀환 노변의 모임

지난 7월 9일 서울 서 스테이크 제 2와 드에서는 3년간 부산 선교부장의 임기를 마치고 귀환한 한 인상 내외를 환영하는 노변의 모임이 있었다.

이날 노변의 모임에서 서울 서 스테이크의 김 창선 부장은 3년간 주님의 사업을 위해 전념한 한 인상 선교부장과 가족의 노고와 희생을 치하하고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인사의 말씀을 하였다.

이어서 이 규인 자매는 지난 3년간의 기간을 회고하면서 어려웠던 일과 아름다웠던 추억 그리고 총관리 역원이나 지도자들의 방문을 통해 얻은 영적인 체험, 이국에서 선교사들의 보호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과 한국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봉사정신을 등 날날이 열거하며 들려 주었다. 이 자매의 말씀을 들은 후 제 2와드에서 준비한 합창이 있었다.

마지막 연사인 한 인상 부장은 3년만에 처음으로 새로 건축된 2와드의 연단에 앉아 회원들의 밝은 모습과 정연하게 진행되는 모임 순서를 지켜보니 스테이크가 크게 발전한 모습을 한눈에 보고 느낄 수 있었

다고 첫 소감을 피력했다. 한 부장은 부산 지역 성도들의 헌신적인 신앙 자세와 희생정신이 선교 사업을 행함에 큰 지주가 되었다고 말하고 신임 선교부장을 모시고 비약적인 발전을 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선교사업이란 특정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회원의 책임이며,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는 결코 성공을 거두기 어려우나 모든 회원의 노력이 결합될 때 반드시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선교사업에 회원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였다.

한 인상 선교부장은 이 규인 자매와의 사이에 3남 2녀를 두고 있다.

말씀하는 이 규인 자매

